

기독교 청년의 동성애 인식 실태 조사

The Perception of Homosexuality among Korean Christian Youth

이다슬(Da Seul Lee)*

김예인(Ye In Kim)**

신성만(Sung Man Shin)(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homosexuality among young Christians in Korea.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247 young individuals at six churches in Seoul, Gyeonggi-do, Incheon, Daegu, and Gyeongsangbuk-do. SPSS 22.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route for young Christian people to get information on homosexuality was media, such as 'Internet(28.0%)', 'TV(25.3%)', and 'Movie(18.8%)', rather than church education. Second, although most young Christian individuals, in this study, clearly recognize homosexual behavior as a sin, 17.8% of them reported more accepting attitudes towards homosexuality on the grounds that one's choice should be admitted. Thir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changing a position regarding homosexual behaviors as not a sin to as a sin is 'Church Education(46.5%)'. Conversely,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shifted stance to disagree on considering homosexuality as a sin were 'disappointment on the attitudes of churches(20.0%)', 'scholars claiming the innate nature of homosexuality(16.7%)', 'media such as TV and movies(16.7%)', and 'doubts on the Bible(16.7%)'. Fourth, the youth members attending churches which actively educate homosexuality as a sin tend to show more satisfactory evaluation on their churches' responses. Fifth, early-twenties are the most indifferent group on homosexuality issues and the most dissenting group in recognizing homosexuality as a si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the direction of future intervention based on the reports in respect to

* 한동대학교 심리학과(Handong Global University)

** 한동대학교 심리학과(Handong Global University)

*** 한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Handong Global University),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sshin@handong.edu

2019년 02월 16일 접수, 02월 16일 최종수정, 03월 08일 게재확정

the perception of homosexuality among young Christian individuals.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given.

Key Words : homosexuality, church education, Christian youth

본 연구는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와 국내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송덕영, 2017). 친동성애 그룹은 ‘문화’와 ‘성소수자’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오성중, 2017). 친동성애 그룹은 지속적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하며(이경직, 2017)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의 측면에서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다양한 성적 행동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신성욱, 2017). 실제로 2007년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2012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송덕영, 2017).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정부가 개선해야 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개선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에서는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 문구를 삭제하고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방안이 수록되었다(법무부, 2018).

한편 이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성 평등’이라는 용어에서의 성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gender)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써 기독교인의 종교·사상·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오고 있다(제양규, 2017; 전윤성, 2018; 크리스천 투데이, 2018). 여러 교단들이 연합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동성애와 관련된 법적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성애에 반대 입장을 표하는 기독교계에 대하여 친동성애 그룹은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라고 적극 비난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도 편향된 정보만을 습득한 채,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일보, 2017; 박경미, 2017; 조병희, 손애리, 2018).

성적지향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성적으로 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양성 등 다양한 성을 가리키지만, 개념이 모호하여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주로 동성 간 성적 행동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경우, 학자들은 성적지향을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정의하기도 한다(Bailey et al., 2016).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은 성 선호(sexual preference)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친동성애 그룹은 성 선호보다 성적지향의 용어를 지향한다. ‘선호’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동성애자가 된 것에 대해 개인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의 취향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The Slate, 2013). 또한, 성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가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하고 계속 변하고 있다. 초기에는 동성애자를 일컫는 보편적인 용어로 LGBT, LGBTQ가 사용되었으나 모든 성적 소수자를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에 의해 LGGBBTTQQLAAPP¹⁾ 14글자로 확대되었다(Lattimer, 2014). 칼럼니스트 Julia Lattimer는 LGGBBTTQQLAAPP 14글자 안에 여전히 모든 성적 소수자를 포괄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모든 성별과 성적소수자를 나타내는 약어인 GSM(Gender and Sexual Minorities)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Collegiate Times, 2014). 하지만 최근 들어 어떤 이들은 GSM보다 GSD(Gender and Sexual Diversity)라는 용

1) Lesbian, Gay, Genderqueer, Bisexual, Bigender, Transgender, Trans, Queer, Questioning, Intersex, Asexual, Agender, Pansexual, Polyamory

Genderqueer: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로 분류할 수 없는 성

Bigender: 자신이 여성과 남성 젠더 정체성 사이에 속하거나 행동한다고 여기는 사람

Queer: 이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제외한 사람

Questioning: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의문을 가진 사람

Intersex: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Asexual: 누구에게도 성적끌림을 느끼지 못하는 무성애자

Agender: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없는 사람, 성정체성이 없음

Pansexual: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에 신경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Polyamory: 다자연애

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Pink News, 2013).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여러 근거중심의 연구들(Bailey et al., 2000; Diamond, 2009; Drabant et al., 2012; Langstrom et al., 2010; Mayer & McHugh, 2016; Ramagopalan et al., 2010; Sanders et al., 2015; Whitehead & Whitehead, 2016)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동성애그룹은 동성애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99% 이상의 통계적 신뢰도를 갖는다고 주장한 Hamer 등(1993)의 연구를 근거로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amer를 포함한 여러 연구진들이 2005년에 다시 연구한 결과, 동성애와 유전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되면서, Hamer 스스로가 자신의 1993년 연구 결과를 반복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다른 연구진들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관련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며(Drabant et al., 2012; Ramagopalan et al., 2010), 최근 2018년 10월 사이언스 매거진에 실린 Ganna의 연구에서도 47만 여명의 유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Wedow et al., 2018).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과학적 근거는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이 높은지 확인하는 것이다(길원평 외, 2017). Langstrom 등(2010)이 스웨덴의 일란성 쌍둥이 7,652명을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남성은 9.9%, 여성은 12.1%로 보고되었다. 이전 Bailey 등(2000)의 연구에서도 10%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일치 비율은 동성애가 유전적인 원인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친동성애그룹은 동성애 성향이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지향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 성향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근거는 없다(길원평, 2017). 이와 반대로 동성애 성향을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성적 유동성(sexual fluidity)’이다. 16~23세의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한 Diamond(2009)의 종단연구에서는 여성들 사이에 성적 유동성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Mayer와 McHugh(201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에 대해 종단연구를 수행한 결과, 동성애에게 성적매력을 느낀다고 한 남성 청소년의 80%가 성인이 되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면서, 성적지향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사람의 일생동안 꽤 유동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동성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기의 동성애적 행동 및 태도가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HIV의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1,474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의 60%는 동성 또는 양성 간의 성 접촉에 의한 것이었으며, 특히 18-29세의 젊은 연령군에 있어서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71.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준명 외, 2018). 또한 동성애 행동은 에이즈 외에도 상처와 감염으로 인해 여러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민성길, 2016), 동성애 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성애 행동을 하는 청소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자살 생각 및 계획을 시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NN, 2017; Caputi et al., 2017). 친동성애그룹은 동성애자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동성애자에 대한 외부적 낙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받아들이는 스웨덴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6,000명이 넘는 동성결혼 커플과 이성결혼 커플을 비교한 결과 동성결혼 커플이 이성결혼 커플보다 2.7배 더 자살 가능성이 높았으며, 특히 동성결혼한 남성의 자살위험은 이성결혼에 비해 거의 3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arlotte et al., 2016). 또한 동성애를 관대히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네덜란드에서도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기분장애, 불안장애, 약물남용장애, 자살시도, 섭식장애 및 공황발작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fesite, 2016).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우호적인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문화적 거부, 낙인이 동성애자의 높은 자살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낙인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낙인만으로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심리적 건강의 차이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Patheos, 2016; Public Discourse, 2017).

동성애에 대한 비과학적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 전반에 파급되는 움직임은 미디어와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청년들에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에서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며(장휘숙, 2010), 인간관계와 사회적 현상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신념과 가치관이 형성된다(최준호, 2016). 이러한 청년들은 Kegan(1994)의 성인발달단계 중 대인관계와 상호성을 중시하는 ‘socialized mind’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의 생각과 신념, 도덕적 기준은 주로 가족, 사회, 이념, 문화 등 주변에 둘러싸인 체계와 사람의 신념, 기준, 가치관 등의 외부 자원의 영향을 받는다. 양육가

설을 주장한 Harris(1995)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 사회화, 언어행동 등은 양육 환경보다는 발달의 주요 환경이 되는 친구와 교사, TV와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포함한 사회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가치관 형성에 있어 사회적 영향의 중대성을 강조한 위의 연구들을 미루어 볼 때, 한국 (기독교) 청년들의 성 및 동성에 인식에 미쳤을 사회 현상과 미디어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 껄럽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한국껄럽 조사연구소, 2017) 20대의 찬성률은 66%였고, 30대와 40대는 오히려 반대가 각각 52%, 54%로 나타났다. 즉 국민들 안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세대 간의 인식 차가 크며, 젊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00명의 20~30대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 의식 및 성 경험에 대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이상원 외, 2014),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1.3%, 실제로 52%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혼전순결 등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교회 안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나 실제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교회 청소년사역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의 필요성과 수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신승범, 2017), 청소년 사역자 95명 가운데 92명이 교회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성교육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역자가 41명이나 되었다. 성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적절한 자료가 없어서(32%)’,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26%)’, ‘시간과 예산이 부족해서(12%)’, ‘교회에서 다루기 적절하지 않은 주제라서(8%)’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이로써 목사와 교역자들조차 성에 대한 심리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기독교 청년들의 변화된 인식과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성에 대해 단순히 금기시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교회에서 금기시해오는 ‘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디어와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정대섭, 2001).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동성애 인식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의식, 성 윤리, 성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은 많았으나(김병립, 2009; 김효진, 2015; 윤성현, 2016; 채은정, 2010; 함의영, 2007),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성 의식 조사나 동성애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는 미비한 편이었다. 지금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

태조사는 대부분 이성 교제 현황 및 결혼관에 대한 연구(김미영; 2010; 임연미, 2004; 장은지, 2015; 정기중, 2013)나 신앙과 연애관, 결혼관, 결혼생활관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김대현, 2007; 김선영, 2005; 이명조, 2003)와 같이 결혼에 초점을 맞춘 주제였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독교 성 윤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은 조연옥(2003)의 연구가 있었다. 조연옥(2003)의 연구에 따르면, 성 윤리 실태조사에서 약 80% 정도의 청년들이 스스로 기독교 성 윤리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한국교회의 성교육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교회가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영주, 2017). 시간이 갈수록 국내 문화가 성적으로 개방되어가는 세대 속에서 기독교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가 만족할 만한 교육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현재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기독교 청년의 인식과 교회의 역할을 분석하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동성애에 대한 한국 기독교 청년들의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경북 지역 교회 청년부에 소속된 남녀 청년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8년 4월~9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의 협조를 받아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A교회, 인천광역시의 B교회, 경기도의 C교회, 대전광역시의 D교회, 경상북도의 E교회 청년부, P시 대학교회에 총 280부의 설문지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우편조사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247부의 설문지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ocio-demographic background of respondents

Variable		N(%)	Variable		N(%)	
Age	15-19	12(4.9)	Church	Church A	54(21.9)	
	20-24	125(50.6)		Church B	38(15.4)	
	25-29	68(27.5)		Church C	22(8.9)	
	30-34	26(10.5)		Church D	49(21.1)	
	35-39	11(4.5)		Church E	10(4.0)	
	40-44	2(0.8)		University Church	71(28.7)	
	no response	3(1.2)		Sex	Male	102(41.3)
	-	-		Female	145(58.7)	

본 조사에 참가한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8.7%(145명), 남성이 41.3%(102명)로 여성 청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9세가 최저, 41세가 최대였으며, 20대가 78.1%로 가장 많았다. 교회에 따른 인원은 평균 40.67명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22.20로 집계되어, 교회 집단별 표본 수의 차이가 다소 큰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교회의 규모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각각 연구 대상자 전체의 약 30%를 구성하는 A교회와 D교회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재적 인원 500명 이상의 대형교회였으며, B, C교회는 약 200~300명의 인원이 등록된 중소형 교회였으며, E교회의 경우 10명 내외의 청년이 교회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되는 소형 교회였다.

Table 2 Christian life period and motivation of respondents

Variable		N(%)	Variable		N(%)
Period of Christian life	from the age of 0 to now	150(60.7)	Motivation for Christian life	Intellectual excitement	3(1.2)
	more than 10 years	48(19.4)		Personality discipline	4(1.6)
	6 to 9 years	19(7.7)		Fellowship among believers	7(2.8)
	2 to 5 years	21(8.5)		Parental influence	42(17.0)
	6 months to 1 year	6(2.4)		Personal spiritual reason	186(75.3)
	Less than 6 months	3(1.2)		no response	5(2.0)
Total	247(100.0)	Total	247(100.0)		

위의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태신앙'이 전체 대상자의 60.7%로 연구대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신앙생활 동기를 살펴보았을 때 '개인의 영적 이유'가

186명(75.3%)으로 나타나, 연구 대상자들 대부분이 영적 필요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모태신앙 150명의 신앙생활 동기도 전체 연구대상자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영적인 이유가 73.3%(110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다음이 부모의 영향 22.0%(33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 일반사항, 신앙생활 충실도, 동성애 죄 인식, 교회에서의 동성애 접촉, 교회의 동성애 이슈에 대한 반응과 태도, 동성애 접촉 매체, 동성애에 대한 태도, 성 의식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과 문항 수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Section	Description	Number of questions
Background information	General information on demographics and Christian life	5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Worship service, Bible, Prayer, Evangelism, Volunteering and almsgiving, Fellowship, Offering	7
Perception of Homosexuality	Perceiving homosexual behavior as sinful, Change in the attitude and its reason	4
Information on Homosexuality offered by church	Bible, Church programs, Discussion among believer	3
Church's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Church's interests in political and legal issues about homosexuality, Activeness of church's teaching on homosexuality, Satisfaction on the attitude of church	3
Exposure to information on Homosexuality	Sources of information on Homosexuality, Homosexual acquaintance, Experience of homosexual affection	4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Cognitive level	3
	Emotional level	2
Sexual consciousness	Basic sex consciousness	3
	Dating and romantic relationship	3
	Premarital sex	3
Total		40

(1) 성 의식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청년의 성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함의영(2007)이 이경숙(2006)의 설문지를 토대로 재구성한 성 의식 검사지를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에 대한 기본의식, 이성교제, 혼전성관계의 세 하위요인에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성은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애정 없이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를 높게 책정할수록 기본적인 성 의식이 다소 개방적이며, 이성교제 중 성관계나 혼전성관계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이경숙(2006)의 연구에서 .72, 함의영(2007)의 연구에서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73으로 나타났다.

(2) 동성애 관련 문항

동성애와 관련된 일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박수진(2004)의 청소년 동성애 태도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중 동성애에 대한 태도, 동성애 관련 정보 출처, 동성애자 지인 및 접촉 경험 유무 등을 묻는 문항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3) 교회 맥락에서의 동성애 관련 문항

동성애 이슈에 대해 교회 차원에서 취하는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출석교회의 동성애 이슈 관련 관심도, 적극도, 신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또 이러한 교회 맥락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본인의 동성애 죄 인식 정도, 교회 맥락에서 공동체, 성경 등을 통한 동성애 관련 내용 노출 경험 등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4) 신앙생활 충실도

신앙생활 충실도 관련 문항은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고순자(2012)의 신앙생활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기독교 신앙활동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하위요인은 교회의 공식 및 비공식적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예배

참여, 개인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진도 생활, 봉사와 구제활동, 친교활동, 봉헌에 대한 내용의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활동의 특성에 따라 충실도를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4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분석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반적인 신앙생활 요소, 성 의식 및 동성애 인식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대, 교회에 따른 동성애 인식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과 성 의식에 있어서 남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연령대, 교회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비모수적 ANOVA 검정인 Kruskal-Wallis 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동성애 인식 실태

(1) 대상자의 동성애 내용 접촉 매체

Table 4 The medium respondents get information on homosexuality

unit: frequency(%)
*Excluded missing data from multiple analysis

Items	Through which medium did you get to know about homosexuality for the first time?	Through which media do you usually get homosexual information most frequently? (select 3)*
TV	69(27.9)	180(25.3)
Internet	60(24.3)	199(28.0)
Movie	13(5.3)	134(18.8)

<continued>

Items	Through which medium did you get to know about homosexuality for the first time?	Through which media do you usually get homosexual information most frequently? (select 3)*
Books	22(8.9)	62(8.7)
Peer group	27(10.9)	56(7.9)
Church	21(8.5)	56(7.9)
School sexual education	11(4.5)	15(2.1)
Parents	1(0.4)	3(0.4)
etc.	17(6.9)	6(0.8)
no response	6(2.4)	10(4.0)
Total Count	247(100.0)	721(100.0)

대상자가 동성애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한 매체로 ‘TV’(27.9%)와 ‘인터넷’(24.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동성애 관련 내용을 주로 접하고 있는 매체의 경우를 물었을 때에도 ‘인터넷’(28.0%)과 ‘TV’(25.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영화’(18.8%)도 상당한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교회’를 통해 처음 동성애를 접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은 8.5%(21명)였고, 주로 접하는 매체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교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7.9%에 그쳤다.

(2) 대상자의 교회 환경에서의 동성애 내용 접촉 경험

Table 5 Experience on homosexual information and contents in church environment

Item	Values	Frequency(%)	Total
In the Bible	Yes	192(77.7)	247(100.0)
	No	55(22.3)	
in discussion among believers	Yes	153(61.9)	247(100.0)
	No	94(38.1)	
At church program	Several times	133(53.8)	247(100.0)
	Once or Twice	91(36.8)	
	No	23(9.3)	

교회 환경에서의 동성애 내용 접촉 경험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이 ‘교회 주관 모임’(90.6%)과 ‘성경’(77.7%)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도와의 토론’을 통해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은 61.9%였다.

(3) 대상자의 동성애에 대한 인지적·감정적 태도

① 인지적 차원

동성애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동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성적 접촉을 원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64명(6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성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동성에게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에 55명(22.3%), ‘동성과 성경험이 있거나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에 27명(10.9%)이 응답하였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는가를 묻은 문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성애를 에이즈 발병의 원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매우 동의한다’ 118명(47.8%), ‘동의한다’ 80명(32.4%)). 한편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9%(12명)이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에 4.5%(11명),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3.2%(8명) ‘보통이다’에 7.3%(18명)의 응답률이 나타났다.

한국 전체 인구의 동성애자 비율에 대해 물었을 때, 실제 국내 동성애자의 비율로 추정되는 약 1-2% 미만(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보다 많은 ‘전체 인구의 10% 이상(30.3%, 74명)’과 ‘전체 인구의 5% 정도(29.9%, 74명)’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2-3% 정도’가 29.6%(73명), ‘1% 미만’이 25명(10.1%)으로 나타났다. 1명(0.4%)의 무응답자가 있었다.

② 감정적 차원

자신이 동성애를 경험한다는 가정 하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의 응답률은 ‘신앙 관련 문제’ 46.6%(115명),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서의 문제’ 65.4%(26.3명), ‘기타 에이즈 등 각종 질병의 감염’ 11.3%(28명), ‘자책감’ 7.3%(1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2명(0.8%)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14명(5.7%)의 무응답자가 있었고, 5명(2.0%)의 기타 응답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그런 가정조차 하

기 싫다.’, ‘그럴 일 없다.’ 등이 있었다.

전체 대상자 중 21명(8.5%)의 응답자가 ‘스스로 동성애자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 중 여자가 15명(10대 1명, 20대 11명, 30대 3명), 남자가 6명(20대 5명, 결혼값 1명)이었다. 고민을 하게 된 이유로는 ‘동성 친구에게 묘한 느낌과 감정의 동요가 있었다’가 47.6%(남자 4명, 여자 6명)이었고, 그 외 동성친구에게만 관심이 가고 감정이 끌려서(여자 1명)의 응답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시기에 아주 잠깐 호기심 어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욕구’, ‘예쁜 여성을 보면 기분이 좋다’, ‘이성을 너무 못만나서’,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등이 있었다.

(4) 대상자의 동성애 수용도

Table 6 Homosexuality acceptance of research subjects

	Values	Frequency(%)	
Unacceptable	Totally unacceptable	135(54.7)	190(76.9)
	Not quite acceptable	55(22.3)	
Acceptable	somewhat acceptable	40(16.2)	44(17.8)
	Totally acceptable	4(1.6)	
	I don't know	13(5.3)	
	Total	247(100.0)	

Table 7 Attitude towards homosexuality of respondents

			unit: frequency(%)	
Values	Item	Frequency(%)	Total	
Less accepting	Think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135(71.1)	190(76.9)	
	Feel uneasy about homosexuality for no particular reason	14(7.4)		
	Concerns for social turmoil	19(10.0)		
	etc.	11(5.8)		
	no response	11(5.8)		
More accepting	Do not matter if that is what they want to do	7(15.9)	44(17.8)	
	Do not want to deny their love because it is one of the ways of their life	7(15.9)		
	Unavoidable if homosexuality is inherent factor	4(9.1)		
	etc.	23(52.3)		
	I don't know	13(5.3)		
	Total	247(100.0)		

<Table 6>에 따르면 대상자의 76.9%(190명)가 동성애에 대해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17.8%(44명)은 수용적이었다. 13명(5.3%)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동성애에 대해 비수용적이라고 응답한 190명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대부분(71.1%)이 ‘죄이기 때문에’ 비수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해하라고 강요한다’, ‘적극적인 재교육과 지원이 요구된다’, ‘소통이 불가능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수용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44명 중에는 동성애를 ‘본인들만 원한다면 상관없고’(15.9%), ‘나름의 생활방식’(15.9%)이며, ‘선천적인 원인’(9.1%)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한편, 기타 의견이 52.3%였는데, ‘그 사랑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양성애적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정죄받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할 수 있다’, ‘도와줘야 한다’, ‘죄이지만 그들을 차별의 시선이 아닌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5) 대상자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 변화

Table 8 The factors affected to change their stance to agree on considering homosexual behavior as sinful

Item	Rank 1	unit: frequency(%)	
		*Excluded missing data from multiple analysis	
		3 things(multiple)*	
Church education	20(46.5)	32(26.0)	
Media such as TV and movies	8(18.6)	23(18.7)	
Internet	6(14.0)	22(17.9)	
Peer group	2(4.7)	14(11.4)	
Books	1(2.3)	12(9.8)	
Parents	1(2.3)	9(7.3)	
School sexual education	1(2.3)	5(4.1)	
etc.	4(9.3)	6(4.9)	
Total	43(100.0)	123(100.0)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보고한 215명 중 20.0%(43명)가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바뀐 43명 중,

46.5%(20명)가 ‘교회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동의로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 3가지를 다중으로 살펴보았을 때, ‘교회교육’의 역할이 26.0%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디어(TV, 영화 등)와 인터넷의 영향은 각각 18.7%와 17.9%로 보고되었다.

Table 9 The factors which affected them to change their stance not to agree on considering homosexual behavior as sinful

unit: frequency(%)
*Excluded missing data from multiple analysis

Item	Rank 1	3 things(multiple)*
Internet	0(0.0)	4(26.7)
Scholars claiming the innate nature of homosexuality	1(16.7)	3(20.0)
Media such as TV and movies	1(16.7)	2(13.3)
Acquaintances who advocate homosexuality	0(0.0)	1(6.7)
Disappointed to the attitude of churches	2(20.0)	2(13.3)
Doubts on the Bible	1(16.7)	2(13.3)
Don't want to be blamed in society	0(0.0)	0(0.0)
Thought I might be homosexual	0(0.0)	0(0.0)
Books	0(0.0)	1(6.7)
Total Count	5(100.0)	15(100.0)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22명 중 5명(27.3%)은 원래 동의하였는데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 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태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계기가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 2명(20.0%)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태도에 대한 실망’을 주 요인으로 꼽았고, 나머지 3명은 각각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학자’, ‘TV, 영화 등 미디어’, ‘성경에 대한 의심’이라고 응답하였다.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세 가지를 고른 것에 대해 다중문항 분석을 하였을 때 보다 명확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다중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26.7%)과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학자(20.0%)’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미디어(13.3%)’,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태도에 대한 실망(13.3%)’, ‘성경에 대한 의심(13.3%)’, 그리고 ‘서적(6.7%)’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독교 청년의 교회별 동성애 인식 실태

(1) 교회별 동성애 이슈에 대한 적극성

Table 10 Perceived activeness of the church in teaching homosexual behavior as sinful

unit: frequency(%)

Values	Church						University Church
	Church A	Church B	Church C	Church D	Church E		
Very active	49(90.7)	16(42.1)	1(4.5)	11(21.2)	6(60.0)	43(60.6)	
Somewhat active	3(5.6)	14(36.8)	8(35.4)	18(34.6)	2(20.0)	15(21.1)	
Usually active	2(3.7)	6(15.8)	7(31.8)	14(26.9)	1(10.0)	5(7.0)	
Not quite active	0(0.0)	1(2.6)	6(27.3)	6(11.5)	1(10.0)	4(5.6)	
Not active at all	0(0.0)	1(2.6)	0(0.0)	3(5.8)	0(0.0)	2(2.8)	
no response	0(0.0)	0(0.0)	0(0.0)	0(0.0)	0(0.0)	2(2.8)	
Total	54(100.0)	38(100.0)	22(100.0)	52(100.0)	10(100.0)	71(100.0)	

Table 11 Attendee's satisfaction on the church's attitude and response to homosexual behavior

unit: frequency(%)

Values	Church						University Church
	Church A	Church B	Church C	Church D	Church E		
Very satisfied	49(90.7)	6(15.8)	3(13.6)	6(11.5)	2(20.0)	11(15.5)	
Somewhat satisfied	7(13.0)	15(38.5)	5(22.7)	10(19.2)	1(10.0)	26(36.6)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7(13.0)	16(42.1)	7(31.8)	29(55.8)	7(70.0)	22(31.0)	
Somewhat dissatisfied	0(0.0)	1(2.6)	7(31.8)	7(13.5)	0(0.0)	8(11.3)	
Never satisfied	1(1.9)	0(0.0)	0(0.0)	0(0.0)	0(0.0)	4(5.6)	
no response	0(0.0)	0(0.0)	0(0.0)	0(0.0)	0(0.0)	0(0.0)	
Total	54(100.0)	38(100.0)	22(100.0)	52(100.0)	10(100.0)	71(100.0)	

Table 12 Kruskal–Wallis test on church’s activeness on teaching homosexual behavior as sinful and Attendee’s satisfaction on the church’s attitude

unit: MEAN±SD

Item	Church					University Church	x2(p)
	Church A	Church B	Church C	Church D	Church E		
Church Activeness	4.87±.44	4.13±.96	3.18±.91	3.54±1.13	4.30±1.06	4.35±1.04	75.82*** (.000)
Attendee’s Satisfaction	4.54±.86	3.68±.78	3.18±1.05	3.29±.85	3.50±.85	3.43±1.98	56.93*** (.000)

위의 <Table 10>은 교회가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지를 교회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각 교회에 따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x^2=75.82, p=.000$), A교회, 대학교회, E교회, B교회, D교회, C교회 순으로 적극적이었다.

해당 교회에 출석 중인 성도로서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만족하는지를 물었을 때, 다섯 교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x^2=56.93, p=.000$). 대응 적극성이 가장 높았던 A교회가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대응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1위였으며, 그다음 B교회, E교회, 대학교회, D교회, C교회 순으로 높았다(<Table 12> 참고).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회가 동성애가 죄임을 알리는 적극도 순위와 동성애에 대한 교회 태도에 대한 성도의 만족도 순위가 B교회(대응적극성 4위, 만족도 2위)와 대학교회(대응적극성 2위, 만족도 4위) 외에 나머지 모든 교회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동성애 대응에 대한 청년 성도의 평가가 만족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3 Cross Analysis on experience on homosexual information and contents in church environment

unit: frequency(%)

Question	Values	Church					University Church (N=71)	$\chi^2(p)$
		Church A (N=54)	Church B (N=38)	Church C (N=22)	Church D (N=52)	Church E (N=10)		
Bible	Yes	47(87.0)	21(55.3)	19(86.4)	31(59.6)	8(80.0)	66(93.0)	34.13***
	No	7(13.0)	17(44.7)	3(13.6)	21(40.4)	2(20.0)	5(7.0)	(.000)
Discussion among believers	Yes	37(68.5)	18(47.4)	16(72.7)	21(40.4)	7(70.0)	54(76.1)	22.03***
	No	17(31.5)	20(52.6)	6(27.3)	31(59.6)	3(30.0)	17(23.9)	(.001)
Church programs	several times	43(79.6)	12(31.6)	12(54.5)	15(28.8)	8(80.0)	43(60.6)	52.76*** (.000)
	once or twice	10(18.5)	18(47.4)	10(45.5)	25(48.1)	2(20.0)	26(36.6)	
	Not at all	1(1.9)	8(21.1)	0(0.0)	12(23.1)	0(0.0)	2(2.8)	

<Table 13>은 앞서 살펴본 성경, 성도와의 토론, 교회 주관 모임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 접촉 여부의 비율을 교회 집단 간 비교 검증한 결과이며, 교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B교회와 D교회의 경우, 성경, 성도와의 토론, 교회 주관 모임 모두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 접촉 경험의 유무 차이가 미미하다는 특징이 확인된다. 또한, 이 두 교회는 교회주관모임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두 교회를 제외한 교회의 청년 성도 대부분(80% 이상)은 성경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교회(79.6%)와 E교회(80.0%)는 동성애 관련 내용을 교회주관모임에서 여러 번 접했다고 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 높았다. C교회는 교회 차원의 모임(여러 번 54.5%)보다는 다른 성도와의 개인적인 토론(72.7%)과 성경(86.4%)에서 접하였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이 높았다. 대학교회의 경우, 동성애 관련 내용을 교회 주관 모임에서 여러 번 접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었고, 개인적으로 성도와의 토론(76.1%)과 성경(93.0%)을 통해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Table 10>과 <Table 11>에서의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 가장 높은 적극성을 보이면서 이와 같은 대응에 대한 성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A교회는 교회 주관의 모임(79.6%)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자주 접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성경(87.0%)에서 접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높았으나, 이에 비해 성도와의 토론(68.5%)을 통한 동성애 내용 접촉 경험은 적었다. C교회의 경우, 교회 차원에서의 죄 인식 제고 적극성이 낮았고, 이에 대한 성도의 만족도도 낮았다. 한편 성도 개인적으로 성경(86.4%)과 성도와의 토론(72.7%)을 통해 동성애 내용을 접해보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E교회는 교회 주관 모임을 통해 동성애 내용 경험을 자주 경험하였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80.0%)이 가장 높았고, 성경(80.0%)과 성도와의 토론(70.0%)을 통한 경험 비율도 높은 편이었지만, 성도가 지각하는 교회의 동성애 죄 인식 제고 적극성과 이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이었다. 대학교회는 동성애가 죄임을 알리는 교회의 적극성, 동성애 내용을 개인적으로 성경(93.0%)과 성도와의 토론(76.1%)을 통해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교회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한편, B교회를 살펴보면, 교회 차원 대응의 적극성과 그에 대한 성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성경을 통한 동성애 내용 접촉 경험 유(55.3%), 무(44.7%)의 차이가 미미했고, 성도와의 토론을 통해 동성애 내용을 접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과반수(52.6%)였다. 동성애 관련 내용 접촉 문항에 대한 B교회의 전반적인 응답 비율이 동성애 이슈에 대한 적극성과 만족도가 낮은 D교회의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교회 차원의 대응 적극성이나 교회 주관의 모임과 그에 따른 성도의 만족도 수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읽어보았는지, 성도와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지와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험 차이가 또 다른 변별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3) 교회별 신앙생활 충실도 및 성 의식

Table 14 Kruskal–Wallis test of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and sexual consciousness (by church)

unit: MEAN±SD

Question	Church						$\chi^2(p)$
	Church A	Church B	Church C	Church D	Church E	University Church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17.43±4.74	12.89±4.11	15.32±3.50	13.14±3.20	13.90±3.14	14.16±4.22	32.71*** (.000)
Sexual consciousness	15.45±4.70	21.26±5.43	17.48±3.82	19.61±4.83	18.80±5.47	18.55±5.23	32.61*** (.000)

신앙생활 충실도에서 교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2.71, p=.000$). 신앙생활 충실도는 A교회, C교회, 대학교회, E교회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B교회, D교회가 낮았다.

이성교제 성관계 또는 혼전 성관계 등에 대한 태도를 평정하는 성 의식 역시 교회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chi^2=32.61, p=.000$). 분석 결과 다섯 교회 중 B교회가 가장 개방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D교회, E교회, 대학교회 순으로 개방적이었다. C교회와 A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었다.

(4) 교회별 동성애 죄 인식

Table 15 Answers on whether they agree that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by church)

unit: frequency(%)

Values	Church					
	A Church	B Church	C Church	D Church	E Church	University Church
Totally agree	49(90.7)	18(47.4)	18(81.8)	29(55.8)	6(60.0)	46(64.8)
lightly	4(7.4)	8(21.1)	3(13.6)	11(21.2)	4(40.0)	19(26.8)
Not agree slightly	0(0.0)	4(10.5)	0(0.0)	5(9.6)	0(0.0)	4(5.6)
Not agree totally	1(1.9)	5(13.2)	1(4.5)	1(1.9)	0(0.0)	1(1.4)
I've never heard of homosexuality is a sin	0(0.0)	1(2.6)	0(0.0)	2(3.8)	0(0.0)	0(0.0)
I don't care if homosexuality is a sin	0(0.0)	2(5.3)	0(0.0)	4(7.7)	0(0.0)	1(1.4)
Total Count	54(100.0)	38(100.0)	22(100.0)	52(100.0)	10(100.0)	71(100.0)

<Table 15>의 교차분석 결과를 통해 교회에 따른 동성애 죄 인식의 양상을 살펴보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동의 응답자 군 내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A교회는 90.7%, C교회는 81.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D교회(55.8%), B교회(47.4%)는 50% 내외의 응답률을 보였다. 대학교회와 E교회는 각각 64.8%, 60.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한편,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응답률이 낮은 B교회와 D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B교회 23.7%, D교회 11.5%) 관심이 없는 응답자(B교회 7.9%, D교회 11.5%)가 비동의와 무관심 응답자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많았다. 대학교회의 경우 비동의 군이 7.0%, 무관심 응답자가 1.4%였다.

3. 기독 청년의 연령대별 동성애 인식 실태

(1) 연령대별 신앙생활 충실도 및 성 의식

Table 16 Kruskal-Wallis test on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and sexual consciousness (by age group)

unit: MEAN±SD

Question	Age group						$\chi^2(p)$
	~19	20~24	25~29	30-34	35-39	early 40s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12.67±4.01	13.73±4.17	15.18±4.11	16.00±4.62	17.80±4.59	21.00±2.83	18.73** (.002)
Sexual consciousness	21.17±4.97	19.07±5.173	17.64±5.22	17.27±5.66	15.73±4.41	15.50±3.54	12.01* (.035)

연령대별 신앙생활 충실도($\chi^2=18.73, p=.002$)와 성 의식($\chi^2=12.01, p=.03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높은 연령대일수록 신앙생활 충실도가 높았고, 혼전 성관계 등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내는 성 의식 개방성 수준은 낮았다.

(2) 연령대별 동성애 죄 인식

Table 17 Answers on whether they agree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by age group)

unit: frequency(%)

Values	Age					
	~19	20~24	25~29	30-34	35-39	early 40s
Totally agree	6(50.0)	76(60.8)	51(75.0)	22(84.6)	8(72.7)	2(100.0)
Slightly agree	5(41.7)	30(24.0)	9(13.2)	3(11.5)	1(9.1)	0(0.0)
Slightly disagree	0(0.0)	8(6.4)	4(5.9)	0(0.0)	0(0.0)	0(0.0)
Totally disagree	0(0.0)	7(5.6)	0(0.0)	0(0.0)	2(18.2)	0(0.0)
Never heard of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1(8.3)	2(1.6)	0(0.0)	0(0.0)	0(0.0)	0(0.0)
Don't care whether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or not	0(0.0)	2(1.6)	4(5.9)	1(3.8)	0(0.0)	0(0.0)
Total	12(100.0)	125(100.0)	68(100.0)	26(100.0)	11(100.0)	2(100.0)

위의 <Table 17>에 나타난 연령에 따른 동성애 죄 인식 양상을 살펴보면, 비동의 응답자(‘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21명 중 19명이, 무관심 응답자 9명 중 7명이 20대에 속해있다. 다른 연령군과 비교할 때 20대 초반의 경우 비동의 응답자(‘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12.0%)은 높았고, 동의군 응답자의 비율(84.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하여 여섯 항목 중 ‘전적으로 동의하는가’ 항목을 보았을 때, 나이가 가장 적은 10대 후반(50.0%)과 20대 초반(60.8%)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4. 기독교 청년의 성별 동성애 인식 실태

(1) 성별 신앙생활 충실도 및 성 의식

Table 18 t-test on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and sexual consciousness (by sex)

unit: MEAN±SD

Question	Sex		t(p)
	Male	Female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14.24±4.29	14.78±4.36	-0.96 (.336)
Sexual consciousness	19.80±5.44	17.52±4.98	3.40*** (.001)

신앙생활 충실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성 의식 개방성은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다($t=3.40, p=.001$).

(2) 성별 동성애 죄 인식

Table 19 Answers on whether they agree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by sex)

Values	unit: frequency(%)	
	Sex	
	Male	Female
Totally agree	65(63.7)	101(69.7)
Slightly agree	21(20.6)	28(19.3)
Slightly disagree	4(3.9)	9(6.2)
Totally disagree	5(4.9)	4(2.8)
Never heard of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2(2.0)	1(0.7)
Don't care whether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or not	5(4.9)	2(1.4)
Total	102(100.0)	145(100.0)

<Table 19>에서 제시되는 결과에 따르면 비동의 응답에 대한 성별 차이는 미미했지만(남성 8.8%, 여성 9.0%), 무관심 응답률이 남성(6.9%)이 여성(2.1%)보다 많은 많았으며, 동의 응답 비율도 남성이 더 낮은 양상(남성 84.3%, 여성 89.0%)이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 청년의 동성애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가 동성애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한 매체와 주로 접하는 매체로 TV(27.9%, 25.3%)와 인터넷(24.3%, 28.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교회를 통해 동성애 관련 내용을 주로 접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9%, 처음 접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5%에 불과했다. 즉, 기독교 청년이 동성애 관련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교회가

아닌 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대상자가 교회 주관 모임(90.6%)과 성경(77.7%)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한 경험이 있었다. 한편 교회 주관 모임, 성경, 성도와의 토론을 통한 동성애 관련 내용 접촉을 교회별로 분석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3> 참고). 교회 간의 차이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동성애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교회 주도적인 모임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교회가 있는 반면(A교회), 교회 주관 모임은 활발하진 않지만 성도와의 토론과 성경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교회가 있었다(C교회, 대학교회). 한편, 전반적으로 교회 내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경험하는 비율이 교회주관 모임, 성도와의 토론, 성경 모두에서 낮게 나타나는 교회도 있었다(B교회, D교회). 이를 통해 기독교 청년이 교회 문화 안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경험하는 양상과 비율이 교회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동성애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상자(80.2%)가 동성애를 에이즈 발병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성애의 의미에 대해서는 반 이상의 대상자(66.4%)가 ‘동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성적 접촉을 원하는 것’이라고 응답했고, 22.3%가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 10.9%가 ‘동성과 성 경험이 있거나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상자는 대체로 (60.2%) 실제 국내 동성애자 비율로 추정되는 인구인 1-2%보다 많게 인지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기독교 청년 대부분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동성애의 의미와 국내 동성애자 비율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성애의 정의와 국내 동성애자의 실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넷째, 동성애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동성애를 경험한다고 가정했을 때 에이즈 및 각종 질병의 감염(11.3%)보다는 신앙 관련 문제(46.6%)에 대해 걱정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스로 동성애자가 아닐까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5%(21명)이었는데, 이들 중 여자가 15명이었다. 한편, 이들이 고민하게 된 계기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동성친구에 대한 묘한 느낌과 감정의 동요’(45.5%)였다. 이는 교회가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 및 청년 성도가 교회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예방적·사후적 차원에서 교육과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이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대상자 대부분(76.9%)은 동성애에 대해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라는 응답(71.1%)이 가장 많았다. 반면, 동성애에 수용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17.8%)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본인들만 원한다면 상관없다(15.9%)’, ‘나름의 생활방식이다(15.9%)’, ‘선천적인 원인이라면 어쩔 수 없다(9.1%)’ 등의 다양한 응답이 고르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기독 청년들이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20% 되는 기독 청년은 개개인의 선택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독 청년들이 동성애 이슈에 담겨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치관을 분별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동성애에 대한 입장 변화를 살펴보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죄라고 동의하는 입장으로 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교회교육(46.5%)’이었다. 한편, 6명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비동의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역시 교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태도에 대한 실망(20.0%)’이었다. 또한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학자(16.7%)’, ‘TV, 영화 등 미디어(16.7%)’, ‘성경에 대한 의심(16.7%)’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려주지만, 교회와 신앙에 대해 회의와 실망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표하는 태도와 행태는 청년 성도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즘 세대의 청년들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정보로 소통하고 근거를 얻으므로, 교회는 동성애 관련 교육 시, 성경 및 윤리에 기반한 내용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선천성 등에 대해 생물심리사회학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회별로 분석한 결과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동성애 대응에 대한 청년 성도의 평가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한편, 교회가 적극적이지 않은데(4위) 그에 대한 청년 성도의 만족도가 높은(2위) 결과를 보인 교회가 있었는데(B교회), 이 경우 청년 성도의 신앙생활충실도가 낮은 것(5위)을 고려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반대로 교회가 매우 적극적(2위)이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4위) 교회(대학교회)가 있었다. 이는 청년 성도가 교회의 동성애 이슈 대응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는 교회의 죄 인식 제고 적극성 수준뿐만 아니라 그 외 요소(예를 들면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표현하는지와 같은 태도적, 질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교회는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알릴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 그 방식과 태도,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 성숙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여덟째, 교회 차원의 요인(대응적극도, 동성애 내용을 다루는 교회 주관 모임)과 성도 개인 차원의 요인(개인적인 토론 및 성경을 통해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하는 경험, 신앙생활충실도, 성 개방성, 동성애 죄인식)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C교회 청년 성도는 교회가 동성애 죄인식 교육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6위), 교회의 비적극성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였다(6위). 또한 동성애 관련 내용을 ‘개인적인 토론(72.7%)’과 ‘성경(86.4%)’을 통해 접하는 비율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회 주관 모임’을 통한 경험은 적은 편(여러 번 있었다 54.5%)이었다. 즉, 청년 성도 개개인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높고, 이에 따라 교회로부터 제공되는 동성애 관련 교육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교회가 이와 같은 청년 성도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교회의 비적극성에도 불구하고 1명(4.5%)을 제외한 모든 청년 성도가 동성애가 죄인 것에 동의하였고, 혼전순결 등에 대해서도 매우 보수적인 성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기도, 말씀, 예배 등 성도 개개인의 기초적 신앙생활 충실도가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청년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총체적인 성 의식을 고려한 양육이나 교육에 그치지 않고, 동성애 이슈와 관련한 세미나, 강의 등의 공동체적인 교육과 모임의 장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더하여, B교회와 D교회의 경우 청년 성도가 인식하기에 교회가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고(4위, 5위), 교회 환경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하는 경험이 적으며(<Table 13> 참고), 신앙생활 충실도가 낮고(5위, 6위), 혼전순결 등에 대한 성 개방성이 높았다(1위, 2위).

아홉째, 연령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신앙생활충실도가 낮았고, 성적개방성이 높게 나타났다.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양상을 연령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21명 중 19명)와 관심이 없는 응답자(9명 중 7명)의 집중팔구는 20대였다. 20대 초반은 비동의 응답자가 가장 많이 속해 있는 연령군(21명 중 15명)이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동의군 응답자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낮은(84.8%) 연령군이였다. 동성애가 죄라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적은 연령대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였다. 즉, 청년 성도 인구의 주축이 되는 20대 초반 연령군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가장 찬성하지 않으면서 가장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 내 다음 세대가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개방적인 성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의 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신앙 및 성 교육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성인기에 접어들며 심리적, 인지적, 신앙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20대 초반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인식 및 성 교육과 신앙적 양육을 총체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 의식에 대한 개방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무관심했다(남자 6.9%, 여자 2.1%). 동의 응답자도 남자가 더 적은 양상(남자 84.3%, 여자 89.0%)을 보였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공동체 내 동성애 및 성 관련 교육을 마련하여 청년이 성에 대한 깊은 지식과 태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독 청년의 동성애 및 성 인식 수준 실태와 교회교육의 방향을 참고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청년 성도의 주축이 되는 20대 초반 연령군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가장 찬성하지 않으면서, 가장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미디어와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연령층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동성애 관련 교육이 다른 연령군보다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대상이라 사료된다. 또한,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않는다고 평가된 교회일수록 교회의 동성애 대응에 대한 청년 성도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청년 성도 가운데 교회에서 제공되는 동성애 관련 교육에 대해 만족되지 않은 기대와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개교회는 동성애 교육과 관련하여 청년 공동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면밀한 요구 파악을 실시하고, 양질의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전달하여 청년들이 바른 성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적극적으로 조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기독 청년이 동성애가 죄인 것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교육임을 밝혔다. 이 응답 결과를 고려할 때, 각 교회의 대응에서 그치지 않고, 노회와 교단 차원에서 연합하여 기독교교육 관련 사역자와 종사자들은 다양한 신앙 발달 수준의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동성애 관련 커리큘럼과 교육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회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도, 말씀 예배 등 개개인의 기초적 신앙생활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결과, 교회의 비적극성에도 불구하고 기도, 말씀, 예배 등 청년 개개인의 기초적 신앙생활 충실도가 높을 경우, 동성애가 죄인 것에 동의하였고, 혼전순결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한 세미나, 강의 등의 공동체적인 교육과 함께 성도들 간의 토론 및 모임 등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독교 청년의 심리 및 신앙의 발달적 특성 등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신앙 발달적 특성에 따르면 청년기는 종합적이고 인습적인 신앙의 단계로, 혼란과 수많은 의문으로 영적인 갈등을 겪는 시기라 할 수 있다(김연국, 2017). 이 시기에 분별하기 어렵고 정체되지 않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가치관들을 마주할 경우, 도덕적 가치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최준호, 2016). 실제로 현대 한국 기독교 청년들 중에는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핵심 교리에 동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원 외(2014)는 “[청년들이] 표준적인 기독교 성윤리의 관점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예단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세상의 관점이 모호하게 제시되는 혼란 속에서 성경의 교훈과 지식이 계속하여 실제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전달될 경우, 청년은 성경을 환경중심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 그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모호하게 제시되는 세상의 관점에 대응하여 동성애의 선천성, 동성애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인권 등에 관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Kegan(1994)이 제안한 인간의 심리적 성숙의 3단계에 따르면, 사회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년 대부분이 해당되는 *socialized mind*에서 자기의식에 대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는 *self-authorized mind*로 이행하려면 사회화 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의 축적이 요구된다. 이는 또래집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 Harris(1995)의 양육 가설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처럼 또래 간의 의사소통이 청년의 심리적 성숙과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청년층의 소통 양식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현세대 청년들의 소통이 주로 인권친화적인 언어, 과학적 언어, 디지털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청년들이 동성애 및 성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습득하는 점을 고려하여,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형태의 미디어에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원섭, 2014). 현대사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해력과 판단력을 요구한다(김영순, 박지선, 2006). 최근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와 성적 유해물이 만연한 미디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아동, 청소년, 청년층(Prensky, 2001)의 미디어 선용을 위한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기독교계에서도 미디어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교회 내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배상율, 2014; 신승범, 2017).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독 청년들이 동성애 관련 지식을 획득하는 경로는 교회가 아닌 미디어였으며, 동성애가 죄라는 입장에서 죄가 아니라는 입장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회는 이와 같은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진단하고, 미디어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개발 및 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 및 청년들을 양육하는 목사와 교역자들은 (심리)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변론할 수 있는 기독 청년을 양성해야 한다. 청년기는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공동체나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의지하는 시기이므로(최준호, 2016), 이들의 공동체와 지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청년의 신앙 모습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회와 지도자는 동성애에 대한 청년 성도의 올바른 지식 함양과 균형적인 태도의 확립을 위해 성경 교육이나 신학적 입장 뿐 아니라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근거 중심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학자와 목회자, 교사, 신학생을 비롯한 교회의 교육사역자들은 여러 과학적 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분석하며, 적극 보급 및 활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 자신의 정체체성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 청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체체성

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 청소년이 교회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예방적·사후적 차원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을 통해 이들의 실제적 고민을 다루어줄 수 있는 교역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리)과학과 상담에 대한 능동적 태도와 비판적 분석 능력은 교회 내 목회와 교육 현장의 제한된 지식을 확장시킬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문화, 정치, 경제, 심리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관한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3.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는 동성애와 관련된 기독교 청년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이와 관련된 적절한 개입의 방향성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 연령이 어릴수록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입장에 좀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디어의 영향과 교회 내에서의 적절한 교육의 부재의 영향일 수 있다. 동성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기의 동성애적 행동 및 태도가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명 외, 2018; CNN, 2017; Caputi et al., 2017). 이러한 근거-기반(evidence-based)의 연구들이 있음에도 현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 행동의 보건학적 위험성을 제기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배종면, 2016). 즉, 기독교 청년들은 미디어의 영향, 친동성애적인 사회적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결과 동성애 행동의 가장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청년의 시기에 동성애 행동에 관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낸 기독교 청년들의 동성애 행동 및 태도에 관한 실태조사는 향후 기독교 청년에 대한 동성애 관련 접근 및 교회 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기초적인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5개의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모든 기독교 청년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회 규모에 따라 인원수 차이가 커 교회별 비교에 있어 비모수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동성애 인식이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성 역량에 대한 타당화된 척도가 부재하여 여러 척도로부터 추출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향후 총체적인 성 역량을 고려한 척도의 개발과 확대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 전무하였던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로 동성애 인식조사를 수행하였고, 기독교 청년의 전반적인 동성애 인식의 현황을 개괄하고, 그것을 교회별 특성, 성도 개인 특성,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분석 및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순자 (2012). **기혼 여성의 기독교 신앙 활동과 가족생활 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북대학교.
- [Ko, S. J.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Married Women's Christian Activity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ir Family Lives*. The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and Social Welfare Hanbuk University.]
- 국민일보 2017. 4. 12일자.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984081> (검색일 2018.5.9.)
- [“The meeting for the prevention of legalization of homosexual marriage”, The Kookmin Ilbo (2017.4.12.). Retrieved fr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984081> (2018.5.9.)]
- 국민일보 2017. 7. 10일자. “한국교회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면 혐오자의 모습이 아닌 인권옹호자로서의 모습이 돼야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08021> (검색일 2018.5.9.)
- [“To prevent the spread of homosexuality, the Korean church should become a human rights advocate, not a loathing figure”, he Kookmin Ilbo (2017.7.10.).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08021> (2018.5.9.)]
- 길원평 (2017). 현대 과학계는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보는가. **기독교학문학회**, 34.
- [Gill, W. P. (2017). Do modern sciences see homosexuality as innate?. *Christian Academic Society*, 34.]
- 길원평, 도명술, 이명진, 이세일, 임완기, 정병갑, 최현림 (2017). 동성애의 선천성을 옹호하는 최근 주장들에 대한 반박. **신앙과 학문**, 22(3), 7-29.
- [Gill, W. P., Do, M. S., Lee, M. J., Lee, S. I., Lim, W. K., Jenong, B. K., & Choi, H. R. (2017). Refutation of the Recent Argument supporting the Homosexuality Inherence. *Faith and Scholarship*, 22(3), 7-29.]
- 김미영 (2010). **대학생의 이성교제 실태 및 가족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 [Kim, M. Y. (2010). *A Study on the Dating and Family Variables among University*

-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 김대현 (2007). *기독교청년들의 배우자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Kim, D. H. (2007). *The Study of Factors on Young Christians' Choosing their Life Companions*. The Graduate School of Ministry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 김준명, 최준용, 정우용, 성혜, 김신우, 김우주, 최희정, 김민자, 우준희, 김윤정, 최보율, 최윤수, 기미경, 김기순 (2018). 국내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의 감염 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대한내과학회지*, 93(4), 379-386.
- [Kim, J. M., Choi, J. Y., Jeong, W. Y., Seong, H., Kim, S. W., Kim, J. W., Choi, H. J., Kim, M. J., Woo, J. H., Kim, Y. J., Choi, B. Y., Choi, Y. Su., Kee, M. K., & Kim, K. Soon. (2018). Mode of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ransmission in Korea: The Korea HIV/AIDS Cohort Stud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l Medicine*, 93(4), 379-386.]
- 김병림 (2009). *청소년의 성의식의 실태와 그에 따른 성상담의 실제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Kim, B. L. (2009). *A Study on Sexual Consciousness Reality and Sexual Counseling Practice for Youth*. The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 김선영 (2005). *선교사 자녀의 결혼관에 대한 상담: 초기 성인기 미혼남녀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Kim, S. Y. (2005). *Counseling of the Outlook on Marriage in Missionary Kids : Involved the Korean Unmarried Male and Female Missionary Kids in Their Early Adulthood*. The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 김연국 (2017). *청년 대학 소그룹을 통한 활성화 방안*.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Y. K. (2016).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through Small Group of Young College*. The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 김영순, 박지선 (2006). 민주시민교육과 미디어 문화 리터러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1(1), 91-110.
- [Kim, Y. S., Park, J. S. (2006).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and Media Culture Literacy. *Korea Civic Education Institute for Democracy*, 11(1), 91-110]
- 김효진 (2015). *기독교 청소년의 성의식, 성태도, 성행동의 영향요인 분석과 그에 따른 목회적 돌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Kim, H. J. (2015). *A Study on Analysis of Influence Factor of Christian Youth's Sexual Consciousness, Attitude, and Behavior and it Consequential Pastoral Caring Plan*. The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 민성길 (2016). 동성애와 관련된 정신사회적 요인들. *기독교학문학회*, 33.
- [Min, S. G. (2016). The Psychosocial Factors related to Homosexuality. *Christian Academic Society*, 33.]
- 박경미 (2017). 한국교회의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여성신학자, 여성 기독교인들의 입장. *한국여성신학*, 86, 69-76.
- [Park, K. M. (2017). Korean Woman Theologians and Pastors' Stance on the Korean Churches' Discrimination against LGBT Community. *Korean Women Theology*, 86, 69-76.]
- 박수진 (2004). **청소년의 팬픽문화와 동성애에 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Park, S. J. (2004). *A Study on Teenagers' Fanfic Culture and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 Focusing on Middle School Girl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배상울 (2014). 디지털 네이티브의 미디어 교육과 이용. **2014년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5-26.
- [Bae, S. Y. (2014). Media Education and Utilization of Digital Native. *Spring Conference of Korean Christian Education Information Society in 2014*, 25-26.]
- 배중면 (2016). 남성동성애의 차별금지에 대한 HIV/AIDS 감염예방측면에서의 공중보건학적 해석. *대한보건연구*, 42(2), 69-74.
- [Bae, J. M. (2016). An Interpretation of Discrimination Prohibition for Men who Sex with Men for Preventing HIV/AIDS Infection in Aspect of Public Health.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2(2), 69-74.]
- 법무부 (201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2022)**.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3&strWrtNo=5178&strAnsNo=A&strRtnURL=MOJ_30600000&strOrgGbnCd=100000 (검색일 2018.9.7)
- [The Ministry of Justice (2018). *The Third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Basic Plan (2018-2022)*. Retrieved from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3&strWrtNo=5178&strAnsNo=A&strRtnURL=MOJ_30600000&strOrgGbnCd=100000 (2018.9.7)]
- 송덕영 (2017). **동성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Song, D. Y. (2017). *A Critical Study on Homosexuality*. The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 신성욱 (2017).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동성애와 설교학적 대안. **성경과 신학**, 81, 339-384.
- [Shin, S. W. (2017). Homosexuality in Postmodern Era and Homiletical Alternatives. *Bible and Theology*, 81, 339-384.]
- 신승범 (2017). 교회 내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신학과 실천**, 53, 529-550.
- [Shin, S. B. (2017). A Study on analysis and strategies on sex education program for youth in the church. *Theology and Practice*, 53, 529-550.]
- 오성종 (2017).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신약신학적, 영성신학적 고찰. **성경과 신학**, 81, 241-300.
- [Oh, S. J. (2017). A Study on the Issue of Homosexuality from Perspectives of New Testament Theology and Spiritual Theology. *Bible and Theology*, 81, 241-300.]
- 윤성현 (2016).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요소에 따른 성의식, 동성애 태도와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Yoon, S. H. (2016). *A Correlation Research of Sexual Opinion and Homosexual Attitude According to the Elements of Belief of Christian Youth*. The Graduate School of Kosin University.]
- 이경숙 (2006). 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의식 및 성행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Lee, K. S.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Type, and Sexual Consciousness and Behaviors of Adolescents*. The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 이경직 (2017). 한국교회와 동성애. **성경과 신학**, 81, 431-460.
- [Lee, K. G. (2017). Homosexuality and Korean Church. *Bible and Theology*, 81, 431-460.]
- 이명조 (2003). 기독교청년들의 신앙정도와 연애관, 결혼관, 결혼생활관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흥신대학교.
- [Lee, M. J. (2003).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ith of Christian Youth and the Perceptions of love, Marriage and Married Life*. The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 이원섭 (2014).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795-809.

- [Lee, W. S. (2014). The Effects of the Experience of Media Education and the Media Literacy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795-809.]
- 이상원, 정재영, 송인규 (2014). **교회의 성(性), 잠금 해제? : 기독교 청년들의 성 의식과 성 경험 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 [Lee, S. W., Jung, J. Y., & Song, I. K. (2014). *The Sex of Church, Unlocked?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Experience Reports of Christian Youth*. Seoul: IVP.]
- 이영주 (2017). **신생 성인기를 위한 기독교 성교육: 통합적 모델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Lee, Y. J. (2017). *Christian Sexual Education for Emerging Adulthood: The Integrated Model*. The Graduate School of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임연미 (2004). **기독교청년의 이성교제 현황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 [Lim, Y. M. (2004). *A Study on the View of Marriage and Present Status of the Relation of Christian Youth*. The Graduate School of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 장은지 (2015). **성인 초기의 결혼관과 연애관 분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Chang, E. J. (2015). *A Study on the separation between values of marriage and love in the early adult gene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장휘숙 (2010).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소년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17.
- [Jang, H. S. (2010). The Effects of Achievement of Developmental Tasks in Adolescence on 5-facto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esteem and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2), 1-17.]
- 정기중 (2013). **기독교대학생의 이성교제 현황 및 부모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Jung, K. J. (2013). *A Study on the Status and Parent Relations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 정대섭 (2001). **청년대학부 활성화를 위한 제자훈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Jung, D. S. (2001). *A Study on the Student Training for the Activation of Youth College*. The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조병희, 손애리 (2018). 한국의 개신교회는 왜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하여 적대적일까?. *보건과사회과학*, 48, 5-28.

[Cho, B. H., Son, A. L. (2003). Why is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hostile to homosexuality and AIDS?. *Health and Social sciences*, 48, 5-28.]

조연옥 (2003). 도시 교회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성윤리의 실태조사와 그 해결책: 목동 지구촌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Cho, Y. O. (2003).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Christian Sexual Ethics and its Solutions in the Youth of Urban Churches: Focusing on the Mokdong Global Village Church*. The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전윤성 (2018).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 회복법. *월드뷰*, 31(8), 24-28.

[Jeon, Y. S. (2018). Anti-discrimination and Rehabilitation of Religious Freedom. *Worldview*, 31(8), 24-28.]

제양규 (2017).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월드뷰*, 30(9), 19-21.

[Jae, Y. G. (2017). It is not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ity. *Worldview*, 30(9), 19-21.]

채은정 (2010).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비교 조사 연구: 경인지역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Chae, E. J. (2010). *A Comparative Study on Sexual Problems between Christians and Non-Christian Youth: Focusing o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in Gyeongin Area*. The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최준호 (2016). 청년기 신앙성숙도가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Choi, J. H. (2016). *The Effect of Faith Maturity on Social Stress in Adolescence*. The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크리스천 투데이 2018. 8. 28일자.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되면 벌어질 일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5506> (검색일 2018.9.7.)

[“What happens when sex equality is replaced by gender equality”, Christian Today (2018. 8. 28). Retrieved from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5506> (2018.9.7.)]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 질병

- 관리본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연구결과보고서.
- [Hanyang University Research Management System (2012). *A Study on the Beliefs and Behaviors of Knowledge Attitude toward AID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전국 성의식 조사**.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과제 연구결과보고서.
- [Korea University Research Management System (2015). *National Survey on the Sexual Consciousnes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7년 동성결혼, 동성애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37> (검색일 2018.05.08.)
- [The Gallup Research Institute in Korea. “Public opinion polls on same-sex marriage and homosexuality in 2017”. Retrieved from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37>(2018.05.08.)]
- 함의영 (2007). **기독교 신앙이 청소년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Ham, H. Y. (2007). *Impact of Christian Faith on Adolescents' Sexuality Perception*.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ungkyul University.]
- Bailey, J. Michael, Vasey, L. Paul, Lisa, M. Diamond, S. Marc Breedlove, Vilain, E., & Epprecht, M. (2016). Sexual orientation, controversy, and science.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17(2), 45-101.
- Bailey, J. M., Dunne, M. P., & Martin, N. G. (2000).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exual orientation and its correlates in an Australian twin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3), 524
- Charlotte et al., (2016). Suicide in married couples in Sweden: Is the risk greater in same-sex couples?. *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31(7).
- Caputi, T. L., Smith, D., & Ayers, J. W. (2017). Suicide risk behaviors among sexual minority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2015.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18(23), 2349-2351.
- Crawford, B. J. (2008). *Exploring intercultural competency growth by non-mobile university students through interaction with dissimilar others*. Master's thesis of University of Jyvaskyla.
- Diamond, L. M. (2008). *Sexual fluid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Drabant, E. M., A. K. Kiefer, N. Eriksson, J. L. Mountain, U. Francke, J. Y.

- Tung, D. A. Hinds, & C. B. Do (2012).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of sexual orientation in a large, web-based cohort*.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 annual meeting. Nov 6-10, San Francisco.
- Hamer, D. H., Hu, S., Magnuson, V. L., Hu, N., & Pattatucci, A. M. (1993).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 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5119), 321-327.
- Harris, J. R. (1995). Where is the child's environment? A group socialization theory of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02(3), 458.
- Kegan, R. (1994). *In over our heads: The mental demands of modern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
- Långström, N., Rahman, Q., Carlström, E., & Lichtenstein, P. (2010). Genet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n same-sex sexual behavior: A population study of twins in Swed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1), 75-80.
- Mayer, L. S., & McHugh, P. R. (2016). Sexuality and gender: Findings from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ciences. *The New Atlantis*, 10-143.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 Roe, R. A. (2002). What makes a competent psychologist?. *European psychologist*, 7(3), 192.
- Ramagopalan, S. V., D. A. Dymant, L. Handunnetthi, G. P. Rice, and G. C. Ebers (2010).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Human Genetics*, 55(2), 131.
- Sanders, A. R., E. R. Martin, G. W. Beecham, S. Guo, K. Dawood, G. Rieger, J. A. Badner, E. S. Gershon, R. S. Krishnappa, A. B. Kolundzija, J. Duan, P. V. Gejman and J. M. Bailey (2015). Genome-wide scan demonstrates significant linkage for male sexual orientation. *Psychological Medicine*, 45(7), 1379-1388.
- Wedow, R., Abdellaoui, A., Beecham, G., Day, F., Ganna, A., Guo, S., & Perry, J. (2018). Results from the largest genetic study of sexual orientation. *Behavior Genetics*, 48(6), 521.
- Whitehead, N., & Whitehead, B. (2010). *My genes made me do it!: Homosexuality and the scientific evidence*. New Zealand: Whitehead Associates.
- "Can Same-Sex Marriage Really Reduce Teen Suicide?", Public Discourse (2017.2.24), Retrieved from <http://www.thepublicdiscourse.com/2017/02/18855/> (2018.5.12.)

- “Gay marriage in Sweden: markedly higher suicide rate”, Patheos (2016.8.16). Retrieved from <http://www.patheos.com/blogs/northamptonseminar/2016/08/16/gay-marriage-in-sweden-markedly-higher-suicide-rate/> (2018.5.10)
- “GSM acronym better than LGBT alphabet soup”, Collegiate Times (2014.10.23.). Retrieved from http://www.collegiatetimes.com/opinion/gsm-acronym-better-than-lgbt-alphabet-soup/article_f7a325a4-5acd-11e4-bf0d-001a4bcf6878.html (2018.5.10.)
- “LGBQ teens face serious suicide risk, research finds”, CNN (2017.12.19.). Retrieved from <https://edition.cnn.com/2017/12/19/health/lgbq-teens-suicide-risk-study/index.html>(2018.5.10.)
- “Organisation proposes replacing the limiting term LGBT with more inclusive GSD”, Pink News (2013.1.25.). Retrieved from <https://www.pinknews.co.uk/2013/02/25/organisation-proposes-replacing-the-limiting-term-lgbt-with-more-inclusive-gsd/> (2018.5.10.)
- “People in homosexual ‘marriages’ almost 3 times more likely to commit suicide: study”, Lifesite. (2016.8.5.), Retrieved from <https://www.lifesitenews.com/news/people-in-homosexual-marriages-almost-3-times-more-likely-to-commit-suicide> (2018.5.11.)
- “Stop Saying Sexual Preference: You may mean well, but it makes you sound ignorant.”, The Slate (2013.06.17.). Retrieved from <http://www.slate.com/human-interest/2018/05/when-good-allies-make-pronoun-mistakes-and-more-advice-from-dear-prudie.html> (2018.5.9.)

논문초록

기독교 청년의 동성애 인식 실태 조사

이다슬 (한동대학교)

김예인 (한동대학교)

신성만 (교신저자/한동대학교)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북 지역의 6개 교회 청년부에 소속된 남녀 청년 247명을 대상으로 한국 기독교 청년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그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SPSS 22.0를 사용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년이 동성애 관련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인터넷'(28.0%), 'TV'(25.3%), '영화'(18.8%)로 교회가 아닌 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기독교 청년들이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기독교 청년들 중 17.8%는 개개인의 선택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죄라고 동의하는 입장으로 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요인은 '교회교육'(46.5%)이었다. 반대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비동의를 하는 입장으로 변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교회 태도에 대한 실망'(20.0%),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학자'(16.7%), 'TV, 영화 등 미디어'(16.7%), '성경에 대한 의심'(16.7%)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넷째, 교회별로 분석한 결과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동성애 대응에 대한 청년 성도의 평가가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초반 연령군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가장 찬성하지 않으면서 가장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분석했을 때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의식에 대한 개방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청년을 위한 동성애 및 성 관련 교회교육 제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동성애와 관련된 기독교 청년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이와 관련된 적절한 개입의 방향성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 청년, 동성애, 교회교육, 미디어, 성